

# 도내 농업계고 학생들, 전국 영농학생축제서 최고 성적

교육부장관상 2개 등 금 10·은 9·동 20개 등 총 39개 메달 획득

전북 농업계고 학생들이 제53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지난달 25~27일 3일간 부산광역시에서 열린 '제53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2024FFK부산대회)'에 참가해 금 10·은 9·동 20 등 총 39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 전북에서는 11개 농업계고에서 90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이에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종자산업과 안승찬·최단시설과 안상열 학생이 전경경진분야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한국치즈과학교 김준호·노승원 학생이 과제이수(공동)분야에서,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바이오식품과 서동혁 학생이 축제분야(골든벨)에서 각각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는 각 분야 전국 1위 학생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전북은 전국 14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도내 농업계고 학



전북 농업계고 학생들이 지난달 25~27일 3일간 부산광역시에서 열린 '제53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2024FFK부산대회)'에 참가해 금 10·은 9·동 20 등 총 39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생들이 지도교사들과 최선을 다해 준 비한 결과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면서 "전북 지역 전라산업인 스마트농

생명·바이오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전주솔내고, 창의 융합형 인재육성 위해 '맞손'

고교-대학 공동교육과정 운영  
고교생 진로 멘토링 지원 등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상진)은 지난달 30일 대학본관에서 전주솔내고등학교(교장 임병민)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임병민 교장, 이남용 교감과 이해원 산학부총장, 김상진 산학협력단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율형 공립고 2.0의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고교-대학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대학 재학생과 연계한 고교생의 진로 멘토링 운영 지원 등이다.

김상진 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진로 및 학과 탐색을 위한 전공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학생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달 30일 대학본관에서 전주솔내고등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들의 진로 설정과 전공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주솔내고 학생들의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전북 유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7년 연속 선정되는 등 지역 산업 발전과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해 지자체, 교육청, 기업은 물론 지역 연계 고교와의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마르치유팜과 협약

전주비전대학 허브조경과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한미서관에서 마르치유팜(대표 김경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브조경과 교수진과 마르치유팜 임직원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림치유 및 조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현장 실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 △산림치유 프로젝트 및 연구 공동 추진, △지역사회 대상 산림치유 및 조경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허브조경과 이운서 교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산림치유 기초 및 실무 과목과 식물 조경 전공 분야의 실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며 산림 식물 조경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경곤 대표는 "전주비전대학 허브조경과의 협력으로 산림치유와 조경 분야의 실무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산림치유와 조경 분야에서 상호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교육거버넌스 위원 공개모집

전북자치도교육청, '제3기' 7일까지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7일까지 제3기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원 11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인기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2년 간이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육거버넌스위원회 당연직 3명, 공무원 위원 5명, 도의회 추천 위원 3명, 공개모집 위원 11명, 외부 위촉위원 18명 등 40명으로 구성된다.

공개모집 위원은 14개 시·군 인구 구성 비율에 따라 선정, 전주 3명, 익산 2명, 군산 2명,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각각 1명씩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

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이어야 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15일 전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거버넌스 위원으로 위촉되면 교육복지 개선에 관한 사항, 기관·민간단체 또는 교육분야 사업별 관련 업무 제도 개선, 기관·민간단체와 연계한 교육협력 관계의 제도화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 형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교육거버넌스위원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교사 행정업무 경감... 학교업무지원센터 연수

전북자치도교육청, 지역별 운영 지원사례 발표 등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학교업무지원센터 업무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세종시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지원본부 운영 지원 사례 강의 △

지역별 학교업무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례 발표 △학교업무지원 분과별 소통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전북교육청은 14개 시·군 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 인력 66명을 확충해 총 11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기타 인력 및 기간제 교원 채용, 도서관·과학교정 정리, 교과서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구성원들이 지난달 28일 저녁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 참가해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다.

## 전북현대 홈경기서 "오오렐레~"

제주의 경기 '전북대인의 날' 지정 열띤 응원  
전북대 구성원들, 녹색 티 맞춰 입고 경기 관람  
전북현대, 경기 후반전 결승골로 2대 1로 이겨

전북대학교 구성원들이 지난달 28일 저녁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 참가해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다.

이에 따르면 이번 응원행사는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과 협약을 맺고 각종 교류행사 등을 개최해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전북현대는 매년 하루를 '전북대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전북대인의 날로 지정된 이날 경기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학생, 유학생 등 2,300여 명이 경기를 관람했다. 전북대만의 뜨거운 분위기는 경기 전부터 이어졌다. 경기장 일원

에서 동아리 학생 공연이 진행된 데 이어 사전행사로 전북대 홍보 동영상도 상영되기도 했다. 이날 경기는 양오봉 총장과 정태현 총학생회장의 시축으로 시작했다.

한편 이날 경기는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결승골이 터지며 전북현대가 2대 1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와 전북현대모터스는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양 기관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지역 발전의 시너지를 만들고, 지역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식물방역대학원 컨퍼런스 통해 연구성과 공유

전북대학교 식물방역대학원(원장 추병길)은 지난달 28일 식물병해충 예방, 관리, 검역 관련 최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대, 경북대, 전남대 식물방역대학원 재학생과 교수 등 60여 명이 참석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추병길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컨퍼런스에서는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이 '식물 주요 병해충 예방 및 방제'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법무법인(유)지평의 신용우 변호사가 'AI 규제 전반'에 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구두 발표에서는 전북대 송성호 졸업생, 김미희 재학생, 전남대 김현희 졸업생, 경북대 안현숙 재학생이 각각 농약 관리 심진화, 식물 유래 물질을 이용한 살균 및 해충 방제, 독성 보유 해충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등 병해충 분야의 주요 주제를 발표했다.

오후에는 식물방역대학원 학생과 교수들이 전북 지역 내 스마트팜 시설과 드론 방제 현장을 방문해 최신 농업 동향 및 첨단 농업 기술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부설 평생교육원 평생학습한마당 전주시장 표창

전주비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지난달 28~29일 양일간 진행된 '제18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에서 전주시장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스무살 평생학습도시, 세대를 잇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평생교육원은 그동안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은성 평생교육원장은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성은 국회의원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나도 이젠 드론 전문가' 홍보부스를 운영,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는 드론 체험을 진행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평생교육원 평생학습한마당 전주시장 표창

전주비전대학 평생교육원은 지난 주말 한국전통문화진흥원에서 열린 '제18회 평생학습한마당'에서 평생학습도시 전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주시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전주비전대학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이 배움을 통해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주 평생학습관이 주관하는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2년 연속 참여했다.

특히 대학의 강점 분야인 힐링과 웰빙의 의미를 담은 힐링(Heal-Bing) 분야에 집중해 허브조경과, 반려동물과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역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